



성공회 영등포 성당

St. Christopher's Anglican Church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 02-2671-6290, 2633-8877(팩스) © stchris@anglican.k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2022년 7월 3일 성삼위일체 후 3주일[연중 14주일 · 맥추감사주일] · 다해 · 녹색

제57-26호

동행과 파송의 신앙

(루가 10:1~11, 16~20)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때를 어린 양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오늘 복음 말씀을 뒤돌아, 어느 신학교 학장 신부님이 졸업식 강론에서 던지신 우스개였다고 합니다. ‘사목 현장에 나가는 이들에게 격려는 못할망정, 이렇게 자존감을 내리누르는 말이 있느냐’고 볼멘소리를 할 성도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종교의 현실을 향해 던지는 이 우려와 경고가 실제로 이곳저곳에서 한탄이 되어 되돌아오는 일이 슬합니다. ‘지갑과 카드, 자동차와 인맥’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에서 벗어나, 신앙인이 먼저 찾아야 할 가치와 멈추지 말아야 할 길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과 길을 함께 걷겠다는 동행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쁜 발걸음으로 여행하시는 까닭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인사받거나 대접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사랑과 배려에 젖은 ‘옛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낯선 타인을 향해 베푸는 사랑과 배려의 ‘새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시려는 뜻입니다. 이 여정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초대하셔서 함께 걷자고 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여 예수님의 삶에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새 예루살렘’을 우리 삶에 매일 짓는 일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삶을 새롭고 낯선 곳에서 펼쳐나가는 파송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가만히 앉아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수동적 환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 낯선 사람이 되고, 환대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 손님이 되어주라는 당부입니다. 신앙인은 자기 안에서만 낮익고 평화로운 관습에서 벗어나,

낮설고 불안정한 삶의 처지를 돌아보며 몸소 겪습니다. 모자라고 빈궁한 처지가 되어 환대의 기쁨이 무엇인지 스스로 새롭게 경험합니다. 아울러, 낯선 이를 어떻게 맞이할지 모르는 문화와 사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누신 사랑과 용서의 환대를 가르칩니다.

이 동행과 파송의 신앙은 갈등하고 불화하는 세상에 평화를 선물하고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실천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화해를 이룰 수 없습니다. 힘 있는 편에만 머물면, 힘없고 약한 사람의 아픔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이익에 군침을 흘리는 ‘이리 때’의 문화에 젖어들고 맙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걷는 길마다, 머무는 곳마다 화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몸과 마음이 뒤틀린 사회를 제대로 바라보고, 인간 동료인 ‘어린 양들’이 아파하는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길입니다.

자기 이익과 안위의 성을 높이 쌓아 올리는 인간과 그 시대는 불안합니다. 삶의 외면 조건이 나아지는데도 인간의 내면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너나없이 ‘이리 때’가 되면 갈등과 상처는 깊어집니다. 오직 평화와 치유를 선물하시려는 예수님의 길에 동행하고 파송 받는 신앙만이 새로운 삶을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느님 나라에 기록된 사람’으로 생활하는 기쁨입니다. 이제 복음 말씀을 다시 세워야겠습니다.

“내가 힘없는 어린 양인 너희를 사나운 ‘이리 때’ 가운데 보낸다. 그러나 내가 동행할 터이니, 힘을 내어라. 가서 환대하고 평화를 세우라.”

(주낙현 신부)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할사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좌사제 구균하 요나로렌스 신부
신자회장 김종희 요셉
사제회장 차기성 안드레

교회위원 구정에 변금숙 서남철 신환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원로위원 서세룡 윤희애 송갑호 추형두 이충웅 이용혜 박해웅 윤용환 이종한
보혈조력 박해웅 신환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혜 이종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이난희 이광자마리아

더해 주시는 하나님

봉헌 생활 — 교회의 기초체력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사는 모든 활동을 <봉헌 생활>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금과 봉사는 모두 우리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봉헌입니다. 우리 삶의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확신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봉헌생활은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고 다른 분과 다른 곳을 향하여 내어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교회의 사목과 선교를 위하여 헌금하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려고 봉사합니다. 봉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봉헌생활 가운데 헌금에 관한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종교와 교회의 불투명한 재정과 부패 문제는 헌금에 대한 불신을 낳습니다. 이에 비하여, 성공회는 헌금을 무작정 강요하지 않으며, 재정이 투명한 공동체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예물과 헌금은 언제나 정직한 신뢰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선교에 쓰이고 이를 위해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헌금의 종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예배 헌금은 크게 서약헌금과 감사헌금으로 나뉘고, 목적 헌금은 특별 목적, 선교 지원, 기금 헌금으로 나뉩니다.



서약헌금 십일조, 월정 또는 주정 헌금 등 1년 간 약속한 봉헌입니다. 연말부터 연초에 서약하여 교회의 선교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초입니다. 헌금의 액수보다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의 다짐과 약속이 중요합니다.

감사헌금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정성입니다. 일곱가지 성사에 따라 성찬례, 세례, 견진, 혼배, 서품, 고해, 조병성사 때 드리며, 출생과 생일, 각종 기념과 입학, 졸업 등 삶의 여러 경조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생각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특별 목적 헌금 사목의 발전과 시급한 목적에 따라 드리는 너그러운 손길입니다. 교회 발전과 성장의 발동음이 되는 소중한 헌금입니다.

선교 지원 헌금 헌금은 밖으로 더 많이 쓰여야 합니다. 지역 교회와 선교 기관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는 데너무도 소중한 헌신입니다.

기금 헌금 한 신앙인의 삶을 교회 안에서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 삶의 선한 유산과 영향력을 이어가도록 신앙의 유지를 받들어 마련하는 헌금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떠받치는 신앙의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을 모시고 살아 가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뿌리를 박고 그 러 위에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견고히 하여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골로 2:6-7)

† 기도해 주세요 †

▣ 어려운 교우와 환자를 위하여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정상운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이현숙
채옥순 최종주 신희숙 신정자 유호애 김복근 민병화 이순환

▣ 임 신 정색별 ▣ 군복무 양승환 김예찬 ▣ 유 학 이재성(독일)

▣ 장기출장

박지혁 김승기 윤상기 한지원(미국) 서한열(캐나다)

▣ 새교우

김두식 안소영 김진선 강가라연

감사성찬례 1형식 (기도서 244-272쪽)

✧ 기도서 ♪ 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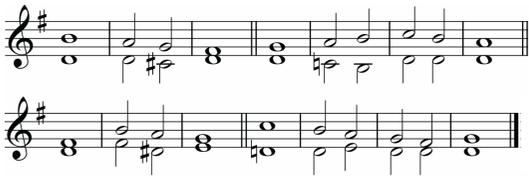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

개회예식

- 입당성가(선다) ♪ 352장 다함께
- 정심기도 ✧ 244 집전자
- 죄의고백 ✧ 245 다함께
- 영광송(C곡) ✧ 246 /♪ 81 다함께

말씀의 전례

- 본기도 집전자
- 언약의 하느님,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나이다. 구하오니,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어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 1 독서(읽는다) 이사 66:10-14 말은이
- 시편 시편 66편 다함께



- 1 온 땅은 하느님을 환호하여라: 존귀하신 이름을 노래하고
○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어라.
- 2 이렇게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 당신은 두려우신 분, 그 하신 일 놀랍습니다.
- 3 당신의 힘, 그 크신 능력을 |보|고
○ 원수들이 무릎 꿇습니다.
- 4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리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 당신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 5 민족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 6 실족하여 죽을세라, 염려해 |주|시|며
○ 우리의 목숨을 |되|살|려|주|셨|다.
-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 2 독서(읽는다) 갈라 6:7-16 말은이
- 복음환호송(A곡) ✧ 301 /♪ 55 말은이
- 복음서(선다) 루가 10:1-11, 16-20 말은이
- 설교(읽는다) 말은이
- 니케아신경(선다) ✧ 249 다함께
-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251 말은이

성찬의 전례

- 평화의 인사(선다) ✧ 256 다함께
- 봉헌성가 ♪ 336장/나오미회 다함께
- 예물기도 ✧ 256 말은이
- 성찬기도(1양식) ✧ 257
거룩하시다(C곡) ✧ 257 /♪ 82 다함께
- 기념환호송(1양식) ✧ 259 /♪ 62 다함께
- 마침영광송 ✧ 259 /♪ 64 다함께
- 주의기도 ✧ 269 /♪ 65 다함께
- 성체 나눔 ✧ 269 다함께
- 하느님의 어린양(C곡) ✧ 270 /♪ 83 다함께
- 영성체(읽는다) ✧ 270
영성체 성가 성가대
- 영성체 후 기도(선다) 다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성체성사로써 우리를 하여금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돌아보시어, 세상의 모든 위협 가운데서 지켜 주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 광고(읽는다) 말은이

파송예식

- 축복기도(선다) ✧ 271 집전자
- 파송 ✧ 272 말은이
- 파송성가 ♪ 574장 다함께

	이번 주일 성찬례 (7월 3일)		다음 주일 성찬례 (7월 10일)	
	9시	11시	9시	11시
집 전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설 교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1독서	우영현	김예중	서정민	전병도
2독서	김태영	이성빈	우영현	박남미
대 도	신명식	변금숙	신명식	한재업
십자가	박해웅	이종한	윤용환	차기성
다음 주일 7월 10일	전례독서 신명 30:9-14 시편 25 골로 1:1-14 루가 10:25-37			
	성 가 입당 267장 봉헌 278장 영성체 성가대 파송 553장			
교 회 청 소	7월 9일 모니카회 3주 박계자 김예중 주애다 조혜순 김복자		7월 9일 모니카회 4주 김난희 심순덕 윤영옥 이태훈 정은숙 주창남	